

연중 제23주일

기도서 430면 (B해)

제1독서 : 이 사 35, 4-7a

제2독서 : 야 고 2, 1-5

복 음 : 마 르 7, 31-37

숲 정 이

“사람들은 ‘귀머거리들
듣게 하시고 병어리도 말을
하게 하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놀랍구나’ 하며 경탄
하여 마지 않았다”

(마르코 7,37).

강론

“당신께 맡깁니다.”

윤양호 신부 / 진안성당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산골입니다. 그래서 여러개의 산마을들이 모이고 모이어서 하나의 분당공동체를 이룹니다. 물론 산골터를 훨씬 벗어나는 읍내구역도 있지만 저는 산골이라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곳에는 특유의 소박함과 아름다운 인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산골에는 씻어낼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가난입니다. 흙 속에서 살고, 흙처럼 검게 타있으며, 흙집에서 삽니다. 손바닥은 비 안을 때의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방문중에 악수를 청하려고 손을 내밀어 감추려는 손을 잡아드릴 때 부드러운 세손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병든몸을 억지로 끌며 일하러 땅으로 가시는 교우, 병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골방에 누운채 생의 끝을 기다리는 교우들을 볼 때 죄스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교우들 중에는 물론 그런대로 가난의 큰 아픔없이 평범하고 소박하게 사는분들도 있지요.

가난의 외적인 아픔 그 안에는 또 늘리고 쌓인 부채더미로 괴로워하는 교우마을을 보면서 지금까지 군사정권의 농민 정책이 얼마나 허구이고 기만이었는지를 확인케 해줍니다. 게다가 얼마전부터 실시하는 농촌의료보험은 가난한 농촌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책수행을 위한 희생제물로 삼아 고통을 짜내는 잘못되고 모순된 것임을 실감케 해줍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음을 봅니다. 빛이 있음을 봅니다. 내외적인 가난의 아픔 속에 사는 우리 교우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신앙을 지키고 살기 위해 심신중곡으로 숨어 들다. 산골에 살게 되고 물려준 조상들의 신앙만으로 형성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목숨마저도 바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아 살고 있는 까닭입니다. 역시 오늘의 복음은 우리네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희망과 빛을 줍니다. 지금껏 살아온 생애동안 무시받고, 소외당하고 천덕꾸러기 살아온 귀머슴 반병어리 한 사람을 예수께서는 듣게 하고 말하게 하십니다. 몸소 그 한사람 만을 위해 따로 데리고 가셔서 자상한 언행으로 그를 살리십니다. 인간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심신으로 가난했던 그 사람은 부요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부요할 수 있는 비밀을 다시 만났습니다. 또한 가장 진실로 가난하여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가난한 이를 먼저 선택하시는 예수님임을 다시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 본당사제로써, 경험도없고 능력도 없는 사제로써, 첫본당사제시작의 일년이 되면서 저는 요즘음 이런 기도를 바칩니다.

“하느님 저는 자격도없는 본당 사제입니다. 인간적 부족함이 저를 몹시도 아프게 합니다. 아픔으로 사는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한 이 사제와 함께 사는 우리 교우들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선택하시는 당신이신 것을 깨달으며 가난한 우리 산골 교우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소리

최·전 전대통령의 시민정신

“한 시민으로써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시대에 불의가 더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미공에 빠질뻔 했던 현역군인의 언론인 테러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용기있는 젊은 시민의 고발정신이 거둔 빛나는 정의의 승리였다.

“범행탐장은 정보사의 서울 북부에 있는 특수임무부대 박철수 소령입니다.”

그동안 군관련사건이 모두 영구미제사건으로 끝났던 것을 상기할 때 한 시민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오로지 책임감에서 범행차량의 번호를 기록해 두었고 범인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신념에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언론인테러사건 현장 목격자인 아파트 경비원은 사건발생 후 20여일 사이에 9차례나 불려다니면서 똑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곤욕을 치렀지만 끝까지 용기있게 진실을 증언, 시민의 사회감시역할이 민주화의 받침돌임을 입증했다.

그런데 온 국민이 두 귀를 곤두세우고 진실만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광주사태 진상조사가 증언선정법위, 방범 등에서부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해 늦어지고 있다.

야당측은 최규하전대통령과 전두환씨를 중심으로 채택하려는데 대해 여당측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한술 더떠 최전대통령은 증언시기와 방법을 상의하기 위해 조사특위가 보낸 대표의 방문조차 거절했다.

광주사태 진상을 최·전전대통령보다 더 잘 알고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무슨 말 못할 사정이 그리 많기에 증인 출두조차 응할 수 없는 것인지, 국민들의 의혹은 자꾸만 커가고 있다.

최·전전대통령은 이제 한 시민으로 돌아왔다. 국민들은 언론인 테러사건의 젊은 제보자와 아파트 경비원처럼 용기있게 국회조사특위에 출두 진실만을 증언하는 시민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숲정이 산책



없었오!

시복 시성 추진과 성지개발을 위한 특별담화문

친애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우리는 1987년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을 온 한국천주교회가 경하하는 가운데 성대히 기념하였으며, 이 고장 교회의 초석을 다져준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과 그들의 묘역 및 유적지의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과 그 성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뜻은,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그분들의 삶을 높이 현양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받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세계 순교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고 “전 조선의 순교자중 우뚝 솟은 하나의 진주”라는 찬탄을 받는 동정부부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 그리고 이 고장의 첫 사도이며 이들에게 완덕의 길을 건도록 이끌어준 그의 부친 유향검 아우구스티노의 시복 시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8년에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위의 숙원사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순교자들의 달을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그 일에 착수하면서 나는 우리 교구민 전체가 이 역사적 사업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동참하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모든 본당과 단체, 각 가정과 개인은 아래 사항을 유념하여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들의 후손된 도리를 다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께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실 천 사 항 ◇

1. 순교 선열들의 기도하는 삶을 본받으며 후손된 효성으로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친다(순교자들의 전구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본당신부에게 즉시 알린다).
2. 순교 선열들의 봉헌하는 삶을 본받아 금육제와 단식제 및 희생을 바치며 그로 인해 절약된 금액을 성역화 사업을 위해 봉헌한다.
3. 순교 선열들을 위한 전례와 교육에 적극 참여하며 시복 시성 대상자들의 삶을 배워(순교사, 순교자 전기) 그 뜻을 오늘에 되새긴다.



전주교구장 /
박 정일 주교

감 사 합 니 다 !!

우린 지금 매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신자들... 그러나 좁고 낡은 성당과 사제관, 수녀원, 교육관등, 우리의 지갑을 필요로 하는 숱한 사업들이 눈앞에 산재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루갈다와 요한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하루속히 만방에 전해야 하는 소명을 더 이상 뒤로 미룰수는 없습니다. 이에 교회는 조심스레, 그러나 교우들에게는 매우 죄송한 마음으로 루갈다산 성역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어려움을 알고 있는 교

황님 께서 5만불(4000여만원).
김 수환 추기경께서 5000만원.
저 멀리 독일 마인쯔 교구에서 1천만 상당을 현금해 주시므로 지친 어깨를 펴게 하십니다.
자! 친애하는 신자 여러분!
힘을 냅시다... 교황님, 추기경님 독일 마인쯔 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여직원구함

(황등외 거주한 교우분 중 여성 졸업자)

●숙식제공●

신 세시리아

연락처 : 황등 미원사료

☎ 52-4235

특 수 방 수

페인트와 같이 칠하여 방수하는 선진 방수제
제품 : 적벽돌면, 타일면, 몰탈면, 옥상, 지하실용
(전품목 수입제품) 적벽돌타일, 백화제거제
판매시공·일반건축전문 ※ 여경리사원 모집
다림교역상사·호남지사 동양종합공사
오 요한(점업) ☎ 72-5475, 7760

서울직영 전주직매장

히리방 등기구전문

박 정근(요 썸)

허 금순(마리아)

금양동 분수대옆 영진빌딩 1층

☎ 5-5365

시복 시성 기도문

거룩한 순교자들로서 십자가의 신비를 기묘히 드러내시는 천주여, 찬미받으소서. 주는 순교자들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영광받으시며, 우리에게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나이다.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간절히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본받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이 뜻을 사랑하게 하소서.

특별히 청하오니, 현세의 온갖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 나라의 첫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아교보, 성체께 대한 사랑으로 신앙에 삼덕의 길을 항구하게 걸은 동정부부 순교자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 교회를 위해 자신과 가정을 오롯이 봉헌한 이 고장의 첫 사도 유향집 아우구스티노에게 시복 시성의 영광을 배부시어 우리 모두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순교자의 삶을 이어가게 하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순교자들의 모후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전주 교구 주보 성인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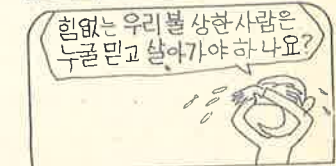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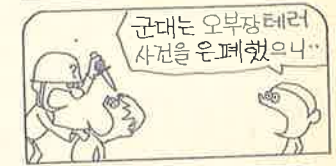
(전주 교구장 박정일 주교 인준)

교 구 소 식

1. 교구 평협 산하 여성연합회 결성 및 연수회 개최 : 5일(월) 오전9시30분~오후5시. 장소-전주가톨릭센터. 참가범위-각 본당 여성부장(또는 부녀부장) 기타 본당 신부님이 추천한 자. 회비-2,000원(1인당)
2. 사회복지회 월례미사 : 5일(오전10시30분) 사회복지회관에서.
3. 군중후원회 10월 월례미사 : 5일 오후8시 가톨릭센터 성당.
4. 군·읍지구 사목교서 연수회 : 9일(오후8시) 장소-월명동천주교회
5. 교구 실업(상공)인회 월례회 : 9일(오후7시) 장소-도청앞 백번집
6. 성 빈첸시오 아·빠울로회 교구 이사회 : 10일(토) 오후3시. 장소-사회복지회관.
7. 초·중교 교리경시대회 : 11일(일) 각본당에서. 시험범위-하계교리교재. 문의-교육국(85-0041)
8. 젊은이를 위한 피정 : 17일~18일. 장소-농협연수원. 회비-1,000원. 대상-교구내 초·중고 교리교사, 대학생, 성가대, 레지오 단원. 강사-김보나수녀, 김승훈신부, 김정원 신부, 손인숙수녀, 접수-13일(화)까지 교육국. 준비물-세면도구, 필기도구, 미사도구. 집결-17일(토) 오후2시 연수원
9. 성소자 피정 : 18일(일) 오전 10시~오후6시 가톨릭센터. 회비-1,000원. 준비물-필기, 미사도구.
10. 9월중 마리아 사제운동 다락방 모임 : 4일 오후2시~5시. 장소-수류성당(오후1시 원평성당에서 집결). 대상-수도자 및 평신도. 강사-문선구 신부. 준비물-미사도구, 성가책, 묵주,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사제들에게」 책
11. 동정성모회 성소자 모임 : 11일(일) 오후2시~4시. 장소-이리성모병원내 수녀원(이리 2-3783)
12. 주수안내 : 권영균신부님 전화 82-2776, 560-150 전주시 서완산동2가 78-15 신성파크 맨션A, P. T 1동 402호.
13. 봉사자를 찾읍니다 : 성지순례단 안내자로 봉사해 주실 주부님들을 기다립니다. 연락처-교구청 홍보국(85-0041~3).
14. 휘폴라레 수도자 모임 : 8일(목) 오후2시30분. 가톨릭센터.

※ 축 영명. 성 모이세(4일) : 이상섭 신부님. 축하합니다.

요십이 (787) 김병오



□ 1분 명상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 사도행전 20.35

명동피부과의원

전북 의료조합 지정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새한콘택스렌즈
원장 전문의 마기환
한 남희(비리시다)
오거리 국민은행 중앙지점 앞 2층
☎ 85-2203

한복·악혼·무용·파티·결혼 고려주단

전 광원 (마르코)
김 삼례 (소피아)
전주시 고사동(산촌예술타워 골목)
☎ 6-1902

복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대여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2-8653

직원모집

- 모집인원
1. 운전기사 1명
2. 사무직(여자) 2명
- 구비서류 :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 모집기간 : 1988. 9. 10일 까지
삼례중앙제재소
☎ 73-8111, 8112

회관임대

- 위치
1. 행복회관(삼례행복예식장1층)
2. 잔병 : 약 60명
- 임대조건
1. 보증금 : 2,000만원
2. 1년세 : 200만원
결혼, 회갑, 피로연, 호적함.
문의전화 : 73-8112

직원모집

- 저희본당에서 봉사할 사무장을
모집합니다.
-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대형면허증사본 1통
영세증명서 1통
본당신부추천서 1통
 - 마감일자 : 1988년 9월 15일
 - 연락처 : 교산성당 73-4019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77-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77-1711 보좌신부 **김진룡**
 수·유 77-1712 사목회장 **황의옥**

※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거룩한 순교자의 뜻을 기리며 살아 가도록 합니다.

1. 환영합니다: 김철규(금구) 사무장
2. 병자방문: 6일(화) 오후 사무실에 접수하세요.(오늘까지)
3. 중·고등부 교리반 개강: 오늘 학생미사후
4. 모임: 사목회-오늘, 공식미사후 자모회-오늘, 3시 미사후 다미안회-7일(수) 오후7시30분 반장회합-9일(금) 어머니 미사후 꼬미씨음-다음주일(11일) 오후2시 예비자 교리가 진행중입니다. 많이 힘써 주세요.
5. 혼배를 예정하신 분들은 적어도 한달전에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교구 혼인강좌 필수요)

□지난주봉헌금: 1,256,910원 □교무금: 470,00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3-1653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1. 사목회-금오회: 공식미사후
2. 차주는 친교주간: 반장님회의-차주공식미사후
3. 초·중·고 교리경시대회: 초등부-9월11일 오후2시 중·고등부-9월11일 공식미사후
4. 사목방문: 9월6일 오후2시-사목회원인 폭 참석요망
5. 전신자녀시대회: 일시-9월10일 오후출발(1박2일) 장소-운암회비10,000원 오늘까지 접수
6. 불우이웃돕기: 효성스즈끼오도바이 전복지사 직원일동(김정수 형제에게) 백미1가마 전달
7. 금주전례: 해설-신동현 봉헌-심동규부부 복사-윤기환 송호관 기도-49만, 50만, 51만
8. 차주전례: 해설-김종구 봉헌-정두희부부 복사-최계호 서범석 기도-52만, 53만, 54만
9. 미사안내: 평화의 모후Pr 차주-천사의 모후Pr

□지난주봉헌금: 새벽167,330원(191명) 공식379,110원(464명) 저녁155,730원(206명) 합계768,490원 □교무금: 1,080,400원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심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삼렬**
 수·유 72-1222

1. 사목회: 공식미사후 2. 요셉회: 공식미사후
3. 성가정회(M·E)모임: 6일(화) 오후8시 성당
4. 본당 부녀 단체 초청강의: 7일(수) 오전10시 강사-이상재 원장님(서울의원) 성심부녀회, 까리따스자모회
5.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할 젊은이들을 기다립니다. (청년성가대): 지휘-김대원(프란치스코) 매주 금요일 오후7시30분 성가연습
6. 교리경시대회: 국민학생-10일(토) 어린이 미사후 중·고생-11일(일) 학생 미사후
7. 본당 성지순례: 11일 배론·연봉성지 오전7시30분까지 공설운동장으로 집결 접수 준비
8. 가정방문: 6일·7일 오후-덕진22만 8일오전, 9일 오후-덕진23만
9. 금주분당청소: 동신자의 모후Pr-10일 오후2시

□지난주봉헌금: 777,360원 □교무금: 875,0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순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수녀원 77-4212

※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1. 구역미사·모임: 그동안 쉬었던 구역미사·모임을 시작합니다. 미사(6일)-동산6구역, 나눔잔치(7일)-팔복 5구역·모임(9일)-원반월
2. 모임: 오늘 공식미사후-애령회, 애덕회 차주 공식미사후-안나회, 글라라회, 울뜨레아(12일), 빈첸시오(13일)
3. 수녀님 방문: 수(7일)-빈첸시오, 금(9일)-가난한이의 어머니
4. 금주청소: 하늘의 문, 차주-자비의 모후
5. 금주전례: 해설-김택천 독서①조용기 ②김진순 차주전례: 해설-손태규 독서①신평우 ②최병유 도서전시회: 다음주일 주회-성마오 말 수도회

□지난주봉헌금: 258,990원 □교무금: 216,000원

□수요헌금: 36,060원

*서신동

사제관 | 4-2214 | 주임신부 **박성팔**
 사무실 | 사목회장 **박병열**

※ 벽돌 헌금 함: 우리들의 정성어린 벽돌 한장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 ※ 젓갈류 판매: 성전 신축을 위한 각종 젓갈류를 판매 합니다.
1. 9월 예비자반 모임: 9월6일(화요일) 오전10시 오후8:30
 2. 오늘의 모임: 사목회, 상임위원회, 성모회(공식미사후) 차주모임-성조희, 울뜨레아(9월11일) 공식미사후
 3. 9월은 교무금 납부의 달: 미납된 분들은 속히 납부하여 주세요.
 4. 축 환영: 전교사 김아네스 자매님을 전심으로 환영 합니다. 금주분당청소 안내: 사랑하올 모후 차주-인자하신 어머니 금주미사 안내: 인자하신 어머니, 전례 차주-자비의 모후, 재정 금주미사 전례: 해설-김남근 독서①박 훈 ②김옥희 차주: 해설-김남근 독서①박기동 ②안춘자

□지난주봉헌금: 242,220원 □교무금: 100,000원

*송천동

사제관 | 74-1004 | 주임신부 **김태운**
 사무실 | 사목회장 **소병울**
 수녀원 4-1142

※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1. 축! 영세: 남14명 여27명
2. 모임: 사목회-공식미사후(소성당) 까리따스 자모회-6일 오후2시 안나회-11일
3. 구역장·반장 회의: 7일 오후2시
4. 유아세례 접수: 대상자는 15일까지 신청바랍니다.
5. 초·중·고 교리 경시대회: 11일 각분당
6. 이달의 구역, 반 형제회: 13일, 14일
7. 금주분당청소: 송천7구역 10일 오전11시
8. 금주전례: 해설-박세영 독서·기도-바다의 별Pr 차주전례: 해설-김혜숙 독서·기도-하늘의 문Pr

□지난주봉헌금: 428,100원 □교무금: 429,000원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이규철**
 수녀원 3-9567

※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1. 오늘: 성모회, 푸른숲(공식미사후),

2. 예비자교리(9월반)시작: 주일반-금일 오전9시 목요일반-8일(목) 오후8시
3. 여성연합회 결성및 연수회: 5일(센터) *참가자-오형희, 권정희, 고영숙, 김영희
4. 사목회: 6일(화) 오후8시 5. 구역모임: 6,7,8,9일 *술머리 참조 6. 초·중·고 고백성사: 10일(토) 오후4시반
7. 다음주: 성마리아 자매님 특별강론 있음
8. '88년 초·중·고 교리 경시대회: 11일(일)오후2시~2시50분 *본당에서 9. 금주분당청소: 화-바다의 별 토-셋빛의 모후
10. 미사안내: 증거자의 모후 11. 미사해설: 잠이몽
12. 금주전례: 독서·기도-김진섭 김영희 봉헌·기도-황덕주 김용자 차주전례: 독서·기도-박해근 강삼석 봉헌·기도-윤영원 오숙구

□지난주봉헌금: 433,660원 □교무금: 575,5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86-5022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3-9236

1. 사목회 월례회의: 4일 공식미사후
2. 미사수건 쓰세요: 오늘부터
3. 견진성사: 10월 2일
4. 회합의 장은 책임을 다하세요.
5. 울뜨레아 모임: 매월 첫주 화요일 저녁 미사후 6일.
6. 금주간 모임: 켈마회 8일 목요일 어머니 미사후
7. 구역방문: 궁정 아파트 6일 오후 1시 방문
8. 성물 의상감 가져오세요.
9. 초등부 중·고등부 교리경시 대회: 초등부 오후 2시, 중고등부 공식 미사후
10. 9월청소: 애덕의 오후 매주 월요일

□지난주 봉헌금: 648,900원

□성전 신축을 위한 2차 헌금: 326,620원 감사합니다.